

KB 쓰즈키

- 개발 기술 제품 전시회에서 11건의 신기술 발표

KB 쓰즈키는 16만 스핀들(spindle, 錐)의 방직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큰 면방직 회사로써 제직, 편성, 염색, 가공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면 소재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신기술을 근 1년에 걸쳐 개발하였다. 얼마 전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한 KB 쓰즈키 그룹 개발 기술 제품 전시회에서 11건의 신기술을 한 번에 발표하면서 공세(攻勢)로 나서고 있다. 이 회사가 이런 종류의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2006년에 시키보 고치 공장(敷紡 高知 工場)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KB 스핀닝(鐘紡 spinning)과 함께 경영을 통합하였다. 2008년에 야마토가와(大和川)에 접해 있는 야마토가와 센코쇼(大和川 染工所)를 그룹 회사(group 會社)로 추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아사히 센쇼쿠(旭染織)의 염색 부문을 사들였다. 큰 면방직 기업들의 대부분이 일본 국내 공장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KB 쓰즈키만이 확대 노선(擴大 路線)을 달리고 있는 것은 색다르게 보인다. ‘일본에서 방직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에 안티테제(Antithese : 反對 命題)를 내미는 것 같은 KB 쓰즈키의 도전은, 이번에 개발 기술 제품전(開發 技術 製品展)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KB 쓰즈키 사장은 “면은 몸에도 환경에도 부드러운 소재이지만 반면에 약점도 있다. 그 약점을 극복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 1년 가깝게 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면에 새로운 가치를 덧붙여 주는 것이 아니고 면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 것은 특정 용도로만 평가되는 특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필요하게 되며, 더욱 새로운 용도의 개척으로도 이어지는 범용성이 높은 기술을 가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값이 싸고 그러면서도 심혈을 기울인 상품 다시 말하면 ‘학(鶴) 무리 중의 학’이 아니라 군계 일학(群鷄 一鶴)과 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다.”고 사장은 말하였

다.

KB 쓰즈키 group 개발 기술 제품 전시회에서 발표된 신기술들

1. TZ 산성 효소법	수산화나트륨이나 염소를 사용하지 않는 정련 표백, 안심 안전, 흡수, pH 7.5이상
2. TZ 산성 효소법 - 改1	상식을 넘은 흡수성, 라로즈 800 이상
3. TZ 소취 가공법	100회의 세탁에 견디는 소취성을 카티온(cation)화하지 않고 부여
4. TZ 향균 가공법	100회의 세탁에 견디는 향균성을 카티온(cation)화하지 않고 부여
5. TZ 초발수 발유 SR 가공법	면 표면의 표면 장력을 230 dyne에서 23 dyne으로 하는 기술. 염색할 때의 처리로 100회 세탁에 견디는 撥水撥油性을 부여
6. TZ 입체 구조화 제법	염색할 때에 면직물을 bulky화하는 기술. 위사 방향의 stretch성, 흡습 방습, 단열성도 부여되었음
7. TZ 백화 억제법	이전에 비하여 2 ~ 3배의 白化 억제 효과를 부여
8. TZ fine denier화 제법	금속 가공 기술을 응용한 할섬화(割纖化) 기술. 당긴맛 · 차진맛, powder touch를 표현할 수 있음
9. TZ 면 · silk	TZ 효소, 활성화법을 활용하여, silk에 손상을 주지 않고 一浴染色
10. TZ 면 · linen	TZ 입체 구조화 제법을 활용한 winter linen
11. TZ 면 · cashmere	cashmere의 촉감을 살리면서 brown cashmere의 白度を 확보

이 전시회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가지 기술이 발표되었는데, 이중에서 TZ 산성 효소법(Tauben Zucker : 葡萄糖 - 酸性 酵素法)은 이미 상업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강알칼리성인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정련 표백하는 기술이며 보통은 pH 값이 8 이상(pH 7이 중성임)인 것을 7.5 이하로 낮출 수 있다.

TZ 소취 가공법이나 TZ 향균 가공법과는 다른 수법으로 가공제를 섬유에 고착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이제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세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TZ 입체 구조화 제법은 염색할 때 섬유를 팽윤시켜 면직물에 벌키성을 만들어 주는 기술로, 보통보다도 30% 정도 가볍게 느껴지며 섬유가 팽윤하여 생지 내부 공기층이 많아

지므로 단열성도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위사 방향으로의 스트레치성도 만들어진다. 이 전시회에서는 이와 같은 생지로 만든 재킷이 발표되었다. 착용해보면 폴리우레탄과 교직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스트레치성을 실감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생지는 면 100% 제품이다.

KB 쓰즈키 그룹 개발 기술 제품 전시회는 도쿄에서 4일간, 오사카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